

정병학회장,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올해 본회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본회는 지난 3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회 사업방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정병학 회장은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육용 (원)종계 자율감축 사업 진행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 개선 ▲농가-계열주체간 상생의 장 마련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 지속적 추진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육용 (원)종계 감축과 관련 정병학 회장은 “지난해 업계의 장기적인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됐고, 정부에 양계협회와 함께 종계 감축을 건의했지만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며 “하지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 거듭 요청한 끝에 종계 감축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계육산업 역사상 이렇게 많은 물량의 종계 감축이 이뤄진 경우는 처음”이라며 “감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복경기까지 육계 시세는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용 종계 감축사업의 경우 우선 1차적으로 본회 물량 48만6천100수(산란계군)를 감축키로 했으며, 육용 원종계는 원종 4사의 하반기 수입물량 자율조정으로 올해 16만2천수만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겉으로만 이뤄지고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병학 회장은 “지금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경영난이 심해 동참하는 사업인 만큼 지켜지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들끼리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내 계육의 날을 제정하고 친목행사를 열어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병학 회장은 “농가와 계열주체가 같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게 좋은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상생의 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경우 현재 닭고기의 우수성 및 영양성 관련 TV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할 계획에 있으며 수입육 시장에 대비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학 회장은 “수입육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는 방식의 홍보는 자칫 잘못하면 국내산의 소비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어 국내산의 우수성을 동시에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축산물 안전 위생 업무 식약처 이관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



본회는 지난 3월 27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2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육용(원)종계 감축사업과 관련 1차 사업이 지난 3월 27일 종료됐으며, 계육협회 411,691수(84.7%), 양계협회 34,915수(67.1%) 총 446,606수가 도태돼 83%(생존수 기준)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축산물 안전 위생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축산물 안전 위생 TF 구성

제1차 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3월 26일 충남 천안 소재 농림

축산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 축산물 안전 위생 T/F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축장 위생관리기준 및 도축업시설기준 개정 내용과 도축업 영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강화 등에 대비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본회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본회 표수일 부회장과 권정오 부장(간사)을 비롯 회원사에서 6명을 선출, 축산물 안전 위생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B2B) 활성화

회원사에 적극 협조 당부

본회는 새정부의 유통구조 개편방침에 따라 직거래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B2B)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회원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행일은 2013년 4월 8일부터이며, 이용방법은 본회 홈페이지(www.chicken.or.kr) 게시판에서 B2B 전용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B2B 대상은 종계, 병아리, 생계 등이며, 각 회원사의 종계담당자나 사육담당자, 수급담당자 등이 이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회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031)707-5722~4 